1강 행복한 삶의 조건

(1교시)

◆ 행복에 대한 성찰

※ 학습목표
환원론에 빠지지 않고 행복에 대해 성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본다.

▲ 행복학과 행복에 대한 성찰
행복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사람의 숫자만큼이나 다양한 답이 나올 것이다. 저마다 각자의 처지에서 행복한 경험을 하면서 살고 있기에, 행복은 개개인이 느끼는 지극히 주관적인 것처럼 생각된다. 이번 강좌에서는 행복을 특정한 입장의 학문에서 접근하는, 그래서 불가피하게 환원론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며, 말 그대로 행복에 대한 성찰을 진행하려 한다.

「`행복학 박사` 나온다 [중앙일보]
미국서 가을에 첫 개설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느냐'를 연구하는 '행복학'이 미국의 한 대학 박사과정에 개설된다.

캘리포니아 클레어몬트대(CGU) 심리학과의 마이크 칙센트미하이 교수는, 가을학기부터 행복학을 연구할 박사과정 학생을 모집한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보도했다. 행복학은 사람이 왜 불행해지느냐를 연구하는, 기존 심리학과는 정반대의 시각에서 연구하는 학문으로, 학교에 정식 과정이 생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긍정적 심리 접근법의 대표적 학문 영역이다. 이 수업에는 심리학과 동료 교수인 진 나카무라와 신경과학.경제학.정치학 교수도 함께 참여한다. 칙센트미하이 교수는 1990년 베스트셀러에 오른 '긍정적 경험의 심리학과 그 흐름'이란 책을 내면서 행복학의 개척자로 평가받고 있다. 덕분에 '유쾌한 박사님'이란 애칭도 얻었다.

그는 "행복학은 무엇이 삶을 가치 있게 하고, 사람에게 희망.기쁨.힘을 주는지 연구하는 과정"이라며 "경험 샘플링과 같은 조사 분석 작업을 이용해, 행복학의 연구 영역을 넓혀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행복한 삶의 조건
-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장 행복한 나라는 덴마크라고 한다. 덴마크는 평균 수명이 길고, 복지정책이 잘 되어있고 문맹률도 낮으며, 국민총소득도 높은 나라라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인 지표가 형편없이 낮은 국가도 있는데, 그 나라가 바로 부탄이다.
부탄은 경제 지표를 가지고 판단할 때 도저히 행복할 수 없는 나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 국민들은 자신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한다.
이러한 경우에 비추어 행복이 외적인 어떤 조건에 있기 보다는, 지극히 주관적인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자가 경제적인 측면이 강조된 행복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심리적인 측면이 강조된 행복이

www.artnstudy.com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에피큐로스는 가능한 한 사람들이 고통을 피하고 기쁘게 살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좋은 삶이라고 말한다.
- 스토아학파는 세상사의 시시비비에 휘말리지 말고 그 모든 판단을 넘어서, 어떤 운명에 순응하여 사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 때에만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 불교에서는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야말로 참된 마음의 평화이고, 이러한 평화는 이타적인 자비행에서 궁극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고 보았다.
- 기독교에서는 철저한 자기 부정 즉, 이타적인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한다.

「행복 / 유치환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느니 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에머랄드빛 하늘이 환히 내다뵈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행길을 향한 문으로 숱한 사람들이
제각기 한 가지씩 생각에 족한 얼굴로 와선
총총히 우표를 사고 전보지를 받고
먼 고향으로 또는 그리운 사람께로
슬프고 즐겁고 다정한 사연들을 보내나니.

세상의 고달픈 바람결에 시달리고 나부끼어
더욱더 의지삼고 피어 흥클어진
인정의 꽃밭에서
너와 나의 애틋한 연분도
한방울 연연한 진홍빛 양귀비 꽃인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느니 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운 이여 그러면 안녕 !

설령 이것이 이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www.artnstudy.com

(2교시)

◆ 관계 속에서의 행복

※ 학습목표
한국인이 관계 속에서 느끼는 행복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한다.

▲ 언어와 행복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문맹이었는데, 늦은 나이에 글자를 배워 읽고 쓸 수 있게 된 것에 감격하여 행복하다고 말한다. 앎을 통해 얻는 지적인 즐거움 또한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 文化가 생기고 그로 인해 생기는 즐거움에서 글자가 갖는 비중은 그만큼 크다. 여기서 우리말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 참고서적: 『순수이성비판』 (임마누엘 칸트/ 백종현/ 아카넷)
『선의 연구』 (니시다 기타로/ 서석연/ 범우사)

▲ 관계 속에서의 행복
유교에서의 행복한 삶이란, 가족 안에서의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가족 안에서 남편과 아내, 부모님과 자녀, 자녀와 자녀, 그리고 이러한 관계는 그대로 국가에로 확대된다. 한 외국인은 유교 덕목의 핵심이 되는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핵심어가 '우리'와 '남'이라고 말한다. 이에 비추어 '우리'라는 공동체 속에서 누리는 기쁨이, 한국인의 행복에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www.artnstudy.com

(3교시)

◆ 불행과 행복

※ 학습목표
행복이 불행의 상대적인 가치임을 이해한다.

▲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
중용의 삶이란 지나친 두 극단을 피하고, 그 중간의 위치에 맞게 적절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건강이 너무 많이 먹거나 너무 적게 먹는 것 사이의 중용에서 성립되듯이, 그렇게 매사에 극단적인 것을 삼가고 적절한 중도를 취할 줄 알아야 한다. 비겁과 만용 사이에 용기가 있듯이, 어떤 행동의 극단에서 벗어나 적절한 입장을 취할 때만 행복에 이를 수 있다.

▲ 소크라테스의 행복
소크라테스는 원칙에 입각해서 철저하게 의무론적 윤리를 주창하며, 끝까지 그것을 고수하면서 살아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은 어떤 주어진 규칙이나 원칙에 입각해서 살아야 행복할 수 있다는, 원칙주의자의 행복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불행
행복이란 불행의 상대적인 가치일 수밖에 없다. 행복의 객관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 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다. 같은 맥락에서 불행이란, 사람에게 불가피한 가치일 수 있다. 진정한 행복에 대한 철학이란, 불행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일 수도 있다.

www.artnstudy.com